

buddhanews.com

공부를 하려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25면에서 계속

분들을 위해서 천도를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서너 번 해야 되는 집이 있고, '아, 저 집은 참 가깝하다. 모두 잘들 지내고 잘들 살아서 저렇게 천도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자손들이 하겠다고 그럴 때는 '그러면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건 자손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기리는 마음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천도제를 안 해도 되는 집이 많아요. 덮어놓고 돈이나 벌고 그러려면이 뭐, 그저 누구나 다 그냥 하라고 하겠지만 안 어떤 땐 그래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러죠. "이다음에 벌어서 부모한테도 효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해." 그렇습니다. "어려운 집에서 남의 돈 취해다가 하면은 그저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 하고 도로 줍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내 행동을 볼 때는 어려운 집이니까 조금 가져와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집에서 몇십만 원이라는 것이 큰 돈이죠, 어려운 집에선요.

질문자(2남): 그리고 국내외로 잦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있는데,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서 뭐 출가자도 있을 수 있고, 기복 불교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같이 이렇게 관법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국내 전체로 해서 천도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천도가 되는지, 아니면 불법만 믿어도 그냥 천도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이게 이렇게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을 가지고, 내 집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주인이 있다면 금방 딱쳐오는 거를 딱 대지를 해서 그냥 딱 처리하는데, 기복으로 믿는 사람은 불려서 끌여다가 이렇게 하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죽고 난 뒤에 오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지는 대로 산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질문자(2남): 결국은 천도가 된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큰스님: 그것은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 신도님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주인을 믿느냐에 따라서 집 주인이 얼마나 대지를 해 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질문자(2남):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선원에서 한 4년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어떤 땐 선원이라고 하고 저도 어떤 땐 절에 간다고도 하는데 만약에 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면 스님께서 특별히 선원이라고 이름을 안 지으셨을 것 같아서 그 표현이 틀리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절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절하는 데가 절이죠, 하하하... 그런데요, 절하는 것만

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참자기를 찾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선법에는 예의를 지켜야 하고 절은 으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일부러 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질문자(2남): 그러면 저희 선원에서는 절이란 말을 안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니,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요, 그냥 대부분 사찰이라고 그러죠. 외부에서 부를 때는요. 그냥 쪽이 절이라고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하진 않죠.

질문자(2남): 그리고 저희들이 법회 있을 적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태껏 저희 대중들은 질

스님들 마음의 공(空)자리에 귀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발승 제자분인 그분들한테 귀의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대통령을 믿으면 비서도 믿듯이 말입니다.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가 이 법을 모두 배출시키거든요. 법을 향해서. 불(佛), 즉 말하자면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깨달았다면 모두 부처님이죠. 마음에서 이렇게 그 법을 정하면 그걸 받아서 불과 승(僧)이 둘 아니게 법을 배출시킨다라는 얘기도, 중요으로.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머리를 안 깎았더라도 공부를 해서 법이 수승

떻게 겸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외에 더 할 것이 있는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 외에 할 것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회장직이라든가 또 고문직이라든가 또는 총무직이라든가 부회장님직이라든가, 또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공부야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그리고 옳고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공부 가 벌써 아니 되죠. 모가 난 것도 등글게 쓸 줄 알아야 대인이 되죠. 요거는 요렇게 발을 잡고 저거는 저렇게 발을 잡고 이런다면, 그 발이 난 거와 발이 안 난 거를 한데 합쳐서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다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옳도에 따라서 그것을 다 초월하고

그래요? 나오지 않는다고. (대중 웃음)

질문자(2남): 다시 이렇게...

큰스님: 나오지 않는 걸 알았다면 그런 부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말입니다.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이게 뭘까 저게 뭘까. 내가 나오지 말까 나을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됐습니까? 지옥이면 지옥이고, 또 천당이면 천당이고, 왔다 갔다 그저 환경에 따라서 옳도에 따라서 뛰려면 뛰고, 천천히 가려면 천천히 가는 거지 아니, 그놈의 게 그냥 규정돼 있었어요? 싸움이 나면 칼을 들 수가 있고 싸움이 안 나면 칼을 끼울 수도 있는 거죠. 칼을 꼭 들어야만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질문자(2남): 그러면 어디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큰스님: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도 없다가도 그 하나가 딱 나올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전체 보살이 화(化)할 수가 있고 이런 거죠.

질문자(2남): 네, 질문 다 했습니다.

큰스님: 다 하셨어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 웃음) 하하하...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을 함이 없이 선뜻선뜻 그냥 해라 이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가다가 보니까 '이러이런데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냥 물어요. 그러면 아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의 거를 그냥 지어서, 책을 봐서, 짝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모르고 묻는 거와 알고 묻는 거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면서 묻는 건 남을 위한 보살행이고요, 또 모르면서 그냥 책에서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난 신뢰감을 갖지 않아요.

질문자(2남): 그런데 이거는 뭘은 게 아니고요.

큰스님: 예,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때는요, 마음속에서 씩니다. '아 이, 뭐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한 서너 가지 마음속에서 글 써요. 써 놓고, 이게 책 아닌 책이죠. 써 가지고 나와서 합니다. 그거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셨어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럼 이제 내려가도 됩니까? 하하하...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옷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옷 벗기 전에 이 도리를 꼭 알아둬야 자기 2세가 또 무의 세계에서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 위 법문은 1904년 12월 4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저렇게
발을 잡고 이런다면

그 탈이 난 거와
탈이 안 난 거를
한데 합쳐서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다 얻을 수가 없죠

문을 했든 스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못했습니다. 옛날에 육조 스님 시대나 그때도 동시에 다 같이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또 저희로서는 저희가 질문을 드려도 또 보충 질문을 스님께서 하시면 저희 질문 차원도 높아지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려다가 미웠다가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큰스님: 스님네들은 승단(僧團)에서 스님네들끼리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겁니다. 이것은 불가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단과 이게 지금 폐단이 생기니까요. 이 승단은 여러분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스님네들끼리 때로는 토론하고 그러니까. 어떡하면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을 잘 이끌어 드릴까 하고요. 하하하...

질문자(2남):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 백일 법문 테이프도 조금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들어 보니까 동시에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귀의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중에 스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그

하다면 스님들께서도 그 사람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지요?

큰스님: 그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마힐 거사 당시에 부처님도 계셨고 유마힐 거사도 있었는데 그때에 부처님도 유마힐 거사의 그 마음을 동등하게 여겨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동등해도 유마힐 거사가 떨어지느냐 하면 벌써, 부처님 발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도, 발을 쓰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가르쳐 주는 건 부처님과 유마힐 거사가 동등하게 같이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얘기도, 부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유마힐 거사가 하시고, 유마힐 거사가 할 수 없는 거를 부처님이 하시고 이렇게요. 이게 마음을 깨달았으면 서로 돌이 아니게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같이 돌아갔으니까요.

질문자(2남): 저희 선원에서요 역대 조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나와 되겠고 또 유마힐 거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우선 자기의 자성(自性)을 보려면 자성 화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지금 스님께서는 주인공한테 돌려 놓고 또 맡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외에 자기 참회나 요런 것이 더 어

대치해서 넘기려면,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그저 돌이 아니게 보고, 저쪽에서 이쪽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고 들더라도 그건 자기가 "그러나." 그리고 듣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 말을 또 저쪽에다 딱 그냥, 그렇게 잘못하고 나가느냐고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부를 하려면 등글게 말할 줄 알고, 모가 난 것도 등글게 행할 줄 알고, 우리가 원형으로써 하면서도 참나참나 법이 서 있던 얘기도.

질문자(2남): 그다음에 '동중일여(動中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오매일여(儺寐一如)' 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번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가 나투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지요?

큰스님: 같기도 하죠, 네.

질문자(2남): 그리고 몸은 물질하고 정신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과 동시에 성불하신 분들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때의 그 마음은 어디...?

큰스님: 나오지 않고 나오기가 어딴가요? 누가

한방(韓方) 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클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해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참에 있어, 제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화하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번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 분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분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발천년의 인간이 조화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된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어문」이 「현불삼」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삼」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